[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거룩한 돌파구

SAEROUN QT

새벽예배 설교 한 홍 목사 · 매주 화-토 6:00 AM · 새로운교회(컨벤션홀)

새로운교회
SAEROUN CHURCH

QT COLUMN
2024. 1

새로운 비전이 잉태되는 베들레헴 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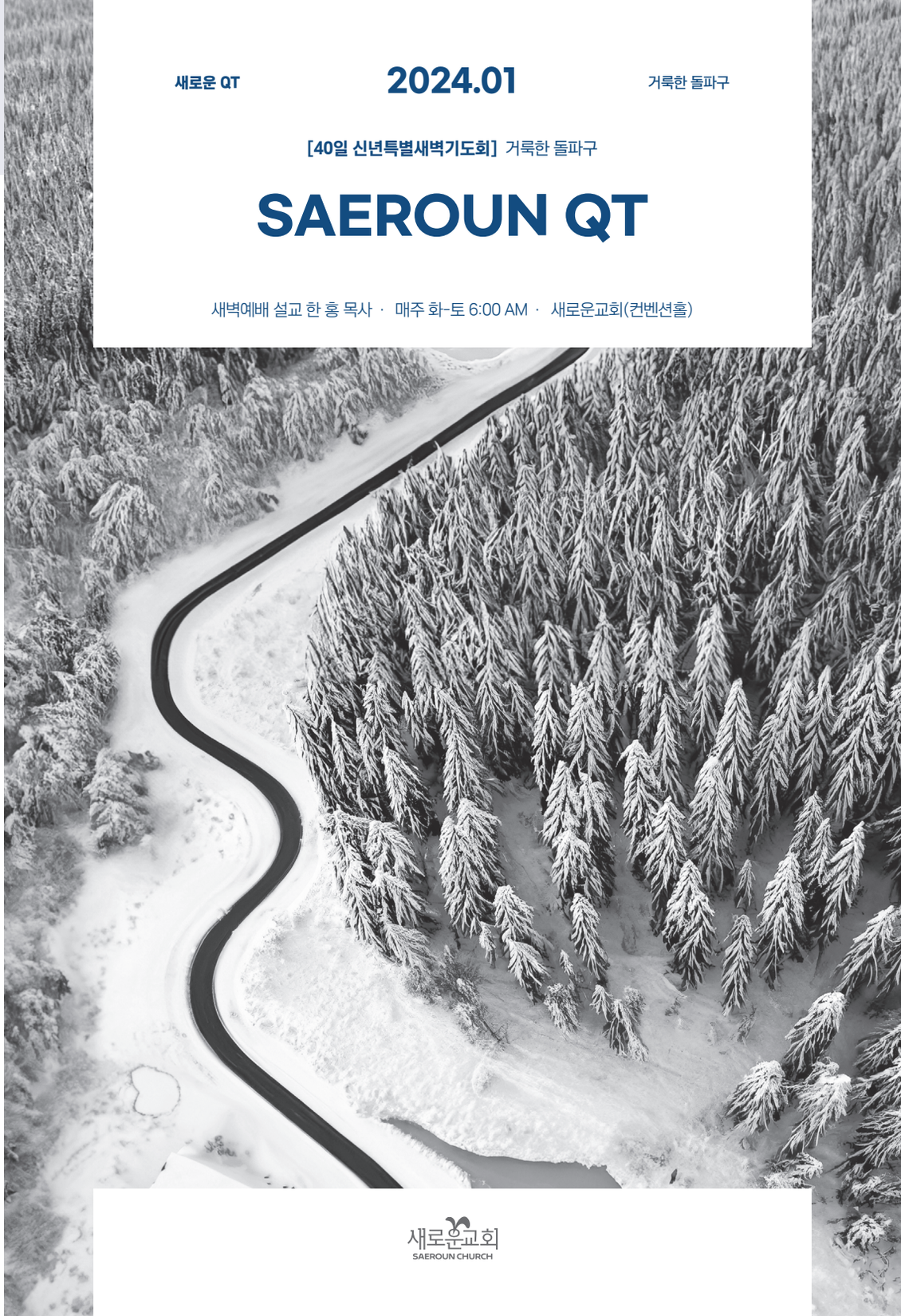
2024년 새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새로운 비전을 가슴에 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이 태어나게 하시는 땅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시골촌락에 가까운 작은 마을로써 성경시대에는 더욱 보잘것없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후손 중에서 위대한 다윗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베들레헴의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세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겉만 보고 쉽게 무시하는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나셨듯이, 세상이 겉모습만 보고 쉽게 우리를 무시해도 우리는 기죽지 않고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하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적 조건이 초라해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써 주시고 높여 주실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빵집(House of Bread)"이라는 뜻으로, 이곳이 상당히 먹을 것이 풍성한 곳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흉년이 왔을 때 나오미 가족은 이를 피해도 이방땅으로 갔다가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결국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오면서부터 모든 회복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축복의 통로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우리 인생이 무너졌을 때 다시 돌아와야 하는 은혜의 땅, 주님과의 첫사랑의 자리입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야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면목없어도 예수님께 돌아오면 우리의 인생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한 해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이전과 다른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의 모판이기 때문에 마귀는 베들레헴을 공격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직후에 몰려온 블레셋의 대군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다윗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의 기를 꺾기 위함이었습니다. 악한 헤롯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 근방의 2살 이하 사내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 모두가 베들레헴을 향한 마귀의 공격입니다. 베들레헴을 공격한 마귀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따라다니며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담대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박했다는 전조이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정신은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정신은 겸손한 예배자의 열정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촌부 이새의 여덟 아들들 중에서도 가장 무시받던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양떼를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지만, 그는 거기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장군이 되고 왕이 되어서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쓰셨습니다. 처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천사들로부터 전해 들은 목자들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물처럼 귀하게 여겨서 즉시 순종하여 아기 예수를 예배하러 달려갔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항상 예수님이 인생 최우선순위에 놓여있습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핑계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 즉시 달려갑니다. 불문곡직하고 달려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실 때 항상 여러분 마음을 열어드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베들레헴 정신입니다.

새로운교회 담임목사 한홍



새로운 QT 2024.01 거룩한 돌파구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거룩한 돌파구

SAEROUN QT

새벽예배 설교 한 홍 목사 · 매주 화-토 6:00 AM · 새로운교회(컨벤션홀)

새로운교회
SAEROUN CHURCH

2024. 01

SAEROUN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24	25	26	27
31 02 송구영신예배	01 신정	02 03 화요 커피브레이크 개강	03 04
07	08	09 08	10 09
14 CES 멘티수료식	15	16 13	17 14
21	22	23 18	24 19
28 새가족 120기(1주차)	29	30 23	31 24

QT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28	29	30 01
04 05	05 06	06 07
11 10	12 11	13 12
18 15	19 16	20 17 SBSB왕초보성경공부
25 20	26 21	27 22 CES 멘토스쿨 개강 SBSB왕초보성경공부
01	02	03

12

SUN	MON	TUE	WED	THU	FRI	SAT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02

SUN	MON	TUE	WED	THU	FRI	SAT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24.
01

30	토	**D-1)** 생의 모래시계를 점검하라	시 90:1-17
31	주일	길갈 : 역사의 터닝포인트	수 4:1-9
1	월	폿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	빌 3:12-14
2	화	**D-3)**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	출 35:1, 4-5, 20-21& 출 36:1
3	수	**D-4)** 성막 봉헌 (1)	출 40:1-16
4	목	**D-5)** 성막봉헌 (2)	출 40:17-38
5	금	**D-6)**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	레 9:22-24
6	토	**D-7)** 거룩의 무서움	레 10:1-20
7	주일	헤브론 : 불굴의 믿음	수 14:6-15
8	월	믿음의 사람들	히 11:1-6
9	화	**D-8)**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하라	민 1:1-4 & 2:32
10	수	**D-9)** 열 두 지파의 진형	민 2:1-2 & 2:32-34
11	목	**D-10)** 제사장 직분의 영광	민 3:1-10
12	금	**D-11)** 레위인은 내 것이라	민 3:11-16
13	토	**D-12)**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1)	민 6:22-27
14	주일	벧엘 : 회복의 아이콘	창 35:1-7
15	월	야곱의 벧엘 서원	창 28:10-22
16	화	**D-13)**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2)	민 6:22-27
17	수	**D-14)** 광야에서 지킨 유월절 (1)	민 9:1-8
18	목	**D-15)** 광야에서 지킨 유월절 (2)	민 9:9-14
19	금	**D-16)** 구름기둥과 불기둥	민 9:15-23
20	토	**D-17)** 출발의 나팔소리 (1)	민 10:1-12
21	주일	예루살렘 : 평화의 도시	대상 11:4-9 & 눅 13:34 & 시 122:1-9
22	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창 39:1-6
23	화	**D-18)** 출발의 나팔소리 (2)	민 10:1-12
24	수	**D-19)** 설득의 법칙	민 10:29-32
25	목	**D-20)** 호밥의 선택	민 10:33-36 & 삿 4:11
26	금	**D-21)** 백성들의 원망 (1)	민 11:1-9
27	토	**D-22)** 백성들의 원망 (2)	민 11:10-15
28	주일	요단강 : 새로운 전설의 시작	수 3:5-17
29	월	거듭남의 산 소망	벧전 1:3-5
30	화	**D-23)**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민 11:16-24
31	수	**D-24)** 하나님의 메추라기떼	민 11:25-35

새로운 QT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

묵상(경건의 시간, QT)이란

QT는 01.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02.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03.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훈련입니다.

··· 찬양과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염려와 세속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 본문 읽기와 묵상하기

본문 말씀을 2~3회 정도 읽은 후, 특별히 마음에 와 닿거나 깨달아지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묵상(Meditation)과 적용(Application)의 질문을 참고하십시오.

··· 적용하기

묵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혹은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적용하고 기록하십시오.

··· 기도하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 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 나눔

QT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된 나의 삶을 순예배에서 순원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또한 순예배 가이드를 참고해서 교재로 순예배를 드리고 나누십시오.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위한 **가이드**

찬양과 기도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내 가족과 이웃, 사회와 나라, 민족 전체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것이 중보기도에 포함됩니다.

중보기도의 순서

1. 회개

자신 안에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습니다.

2.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1) 배우자와 자녀들의 영적성장과 건강,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2)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1)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순장, 임직자 및 각 사역 팀장님들 위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기름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이 확장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선교지에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4.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1)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 외 모든 위정자와 정부 기관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섬김의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2) 이 나라에 건전한 경제 질서의 기반이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정직과 나눔, 청지기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3)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4) 인터넷, 신문, 방송, TV, 잡지 등 모든 언론 매체가 진실에 기반을 두도록 기도합니다.
5) 타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경험되며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합니다.
6) 부부와 자녀, 그리고 형제 간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순예배시

순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1) 지난주 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을 받은 내용들에 대해 나누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2)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빈 칸에 적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1) 선교와 사회참여에 관련해 요청된 기도제목들을 놓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2) 우리 교회 내 다양한 사역부서들 가운데 매주 부서별로 올라온 기도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30

토

생의 모래시계를 점검하라

시 90:1-17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1

1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2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3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4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5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6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7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8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9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10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1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12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3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14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5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16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17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31

주일

길갈 : 역사의 터닝포인트

수 4:1-9

1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When the whole nation had finished crossing the Jordan, the Lord said to Joshua,

2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Choose twelve men from among the people, one from each tribe,

3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곳에서 돌 열둘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밤 너희가 유숙할 그 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and tell them to take up twelve stones from the middle of the Jordan, from right where the priests are standing, and carry them over with you and put them down at the place where you stay tonight."

4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So Joshua called together the twelve men he had appointed from the Israelites, one from each tribe,

5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and said to them, "Go over before the ark of the Lord your God into the middle of the Jordan. Each of you is to take up a stone on his shoulder,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 tribes of the Israelites,

6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to serve as a sign among you. In the future, when your children ask you, 'What do these stones mean?'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7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tell them that the flow of the Jordan was cut off before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When it crossed the Jordan, the waters of the Jordan were cut off. These stones are to be a memorial to the people of Israel forever."

8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열둘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So the Israelites did as Joshua commanded them. They took twelve stones from the middle of the Jordan,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 tribes of the Israelites, as the Lord had told Joshua; and they carried them over with them to their camp, where they put them down.

9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둘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Joshua set up the twelve stones that had beenin the middle of the Jordan at the spot where the priests who carried the ark of the covenant had stood. And they are there to this day.

01 월

푯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

빌 3:12-14

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Not that I have already obtained all this, or have already arrived at my goal, but I press on to take hold of that for which Christ Jesus took hold of me.

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Brothers and sisters, I do not consider myself yet to have taken hold of it. But one thing I do: Forgetting what is behind and straining toward what is ahead,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14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I press on toward the goal to win the prize for which God has called me heavenward in Christ Jesus.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2

화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

출 35:1, 4-5, 20-21 & 출 36:1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3

(출 35:1, 4-5, 20-21)

1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Moses assembled the whole Israelite community and said to them, "These are the things the Lord has commanded you to do:

4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Moses said to the whole Israelite community, "This is what the Lord has commanded:

5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From what you have, take an offering for the Lord. Everyone who is willing is to bring to the Lord an offering of gold, silver and bronze;

20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Then the whole Israelite community withdrew from Moses' presence,

21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and everyone who was willing and whose heart moved them came and brought an offering to the Lord for the work on the tent of meeting, for all its service, and for the sacred garments.

(출 36:1)

1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So Bezalel, Oholiab and every skilled person to whom the Lord has given skill and ability to know how to carry out all the work of constructing the sanctuary are to do the work just as the Lord has commanded."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3

수

성막 봉헌 (1)

출 40:1-16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3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4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5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6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7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8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9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4

10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11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12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13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14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15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16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4

목

성막 봉헌 (2)

출 40:17-38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5

17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18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띠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19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0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21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2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23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4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25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6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27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8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29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0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31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32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3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34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5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36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7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38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5 금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

레 9:22-24

22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Then Aaron lifted his hands toward the people and blessed them. And having sacrificed the sin offering, the burnt offering and the fellowship offering, he stepped down.

23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Moses and Aaron then went into the tent of meeting. When they came out, they blessed the people; and the glory of the Lord appeared to all the people.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6

24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Fire came out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consumed the burnt offering and the fat portions on the altar. And when all the people saw it, they shouted for joy and fell facedown.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6

토

거룩의 무서움

레 10:1-20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7

1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3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4 모세가 아론의 삼촌 웃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아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5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6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7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8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10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11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12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제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13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14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15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16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17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18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19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20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7

주일

헤브론 : 불굴의 믿음

수 14:6-15

6 그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Now the people of Judah approached Joshua at Gilgal, and Caleb son of Jephunneh the Kenizzite said to him, "You know what the Lord said to Moses the man of God at Kadesh Barnea about you and me.

7 내 나이 사십 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I was forty years old when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sent me from Kadesh Barnea to explore the land. And I brought him back a report according to my convictions,

8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but my fellow Israelites who went up with me made the hearts of the people melt in fear. I, however, followed the Lord my God wholeheartedly.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9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So on that day Moses swore to me, 'The land on which your feet have walked will be your inheritance and that of your children forever, because you have followed the Lord my God wholeheartedly.'

10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사십오 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팔십오 세로되

"Now then, just as the Lord promised, he has kept me alive for forty-five years since the time he said this to Moses, while Israel moved about in the wilderness. So here I am today, eighty-five years old!

11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 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I am still as strong today as the day Moses sent me out; I'm just as vigorous to go out to battle now as I was then.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12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Now give me this hill country that the Lord promised me that day. You yourself heard then that the Anakites were there and their cities were large and fortified, but, the Lord helping me, I will drive them out just as he said."

13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Then Joshua blessed Caleb son of Jephunneh and gave him Hebron as his inheritance.

14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So Hebron has belonged to Caleb son of Jephunneh the Kenizzite ever since, because he followed the Lord, the God of Israel, wholeheartedly.

15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Hebron used to be called Kiriath Arba after Arba, who was the greatest man among the Anakites.)

08 월

믿음의 사람들

히 11:1-6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Now faith is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and assurance about what we do not see.

2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This is what the ancients were commended for.

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By faith we understand that the universe was formed at God's command, so that what is seen was not made out of what was visible.

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By faith Abel brought God a better offering than Cain did. By faith he was commended as righteous, when God spoke well of his offerings. And by faith Abel still speaks, even though he is dead.

5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By faith Enoch was taken from this life, so that he did not experience death: "He could not be found, because God had taken him away." For before he was taken, he was commended as one who pleased God.

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And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because anyone who comes to him must believe that he exists and that he rewards those who earnestly seek him.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9

화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하라

민 1:1-4 & 2:32

(민 1:1-4)

1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The Lord spoke to Moses in the tent of meeting in the Desert of Sinai on the first day of the second month of the second year after the Israelites came out of Egypt. He said:

2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Take a census of the whole Israelite community by their clans and families, listing every man by name, one by one.

3 이스라엘 중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You and Aaron are to count according to their divisions all the men in Israel who are twenty years old or more and able to serve in the army.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8

4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One man from each tribe, each of them the head of his family, is to help you.

(민 2:32)

32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육십만 삼천오백오십 명이며

These are the Israelites, counted according to their families. All the men in the camps, by their divisions, number 603,550.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0 수

열 두 지파의 진형

민 2:1-2 & 2:32-34

(민 2:1-2)

1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The Lord said to Moses and Aaron:

2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The Israelites are to camp around the tent of meeting some distance from it, each of them under their standard and holding the banners of their family."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9

(민 2:32-34)

32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육십만 삼천오백오십 명이며

These are the Israelites, counted according to their families. All the men in the camps, by their divisions, number 603,550.

33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The Levites, however, were not counted along with the other Israelites, as the Lord commanded Moses.

34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기를 따라 진 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So the Israelites did everything the Lord commanded Moses; that is the way they encamped under their standards, and that is the way they set out, each of them with their clan and family.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10

11 목

제사장 직분의 영광

민 3:1-10

1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2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3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 받은 제사장들이라

4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5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7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8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9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10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2 금

레위인은 내 것이라

민 3:11-16

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The Lord also said to Moses,

12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I have taken the Levites from among the Israelites in place of the first male offspring of every Israelite woman. The Levites are mine,

13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for all the firstborn are mine. When I struck down all the firstborn in Egypt, I set apart for myself every firstborn in Israel, whether human or animal. They are to be mine. I am the Lord."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11

14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The Lord said to Moses in the Desert of Sinai,

15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일 개월 이상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Count the Levites by their families and clans. Count every male a month old or more."

16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So Moses counted them, as he was commanded by the word of the Lord.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3

토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1)

민 6:22-27

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The Lord said to Moses,

23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Tell Aaron and his sons, 'This is how you are to bless the Israelites. Say to them:

24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12

25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26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27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So they will put my name on the Israelites, and I will bless them."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4

주일

벧엘: 회복의 아이콘

창 35:1-7

1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Then God said to Jacob, "Go up to Bethel and settle there, and build an altar there to God, who appeared to you when you were fleeing from your brother Esau."

2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So Jacob said to his household and to all who were with him, "Get rid of the foreign gods you have with you, and purify yourselves and change your clothes.

3 우리가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Then come, let us go up to Bethel, where I will build an altar to God, who answered me in the day of my distress and who has been with me wherever I have gone."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4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So they gave Jacob all the foreign gods they had and the rings in their ears, and Jacob buried them under the oak at Shechem.

5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Then they set out, and the terror of God fell on the towns all around them so that no one pursued them.

6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벧엘에 이르고

Jacob and all the people with him came to Luz (that is, Bethel) in the land of Canaan.

7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벧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There he built an altar, and he called the place El Bethel, because it was there that God revealed himself to him when he was fleeing from his brother.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15 월

야곱의 벧엘 서원

창 28:10-22

10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13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6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8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 그 곳 이름을 벧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20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13

16 화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2)

민 6:22-27

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The Lord said to Moses,

23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Tell Aaron and his sons, 'This is how you are to bless the Israelites. Say to them:

24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25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26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27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So they will put my name on the Israelites, and I will bless them."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14

17 수

광야에서 지킨 유월절 (1)

민 9:1-8

1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The Lord spoke to Moses in the Desert of Sinai in the first month of the second year after they came out of Egypt. He said,

2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Have the Israelites celebrate the Passover at the appointed time.

3 그 정한 기일 곧 이 달 열넷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Celebrate it at the appointed time, at twilight on the fourteenth day of this month, in accordance with all its rules and regulations."

4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So Moses told the Israelites to celebrate the Passover,

5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and they did so in the Desert of Sinai at twilight on the fourteenth day of the first month. The Israelites did everything just as the Lord commanded Moses.

6 그 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But some of them could not celebrate the Passover on that day because they were ceremonially unclean on account of a dead body. So they came to Moses and Aaron that same day

7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and said to Moses, "We have become unclean because of a dead body, but why should we be kept from presenting the Lord's offering with the other Israelites at the appointed time?"

8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Moses answered them, "Wait until I find out what the Lord commands concerning you."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15

18 목

광야에서 지킨 유월절 (2)

민 9:9-14

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Then the Lord said to Moses,

10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Tell the Israelites: 'When any of you or your descendants are unclean because of a dead body or are away on a journey, they are still to celebrate the Lord's Passover,

11 둘째 달 열넷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에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but they are to do it on the fourteenth day of the second month at twilight. They are to eat the lamb, together with unleavened bread and bitter herbs.

12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They must not leave any of it till morning or break any of its bones. When they celebrate the Passover, they must follow all the regulations.

13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But if anyone who is ceremonially clean and not on a journey fails to celebrate the Passover, they must be cut off from their people for not presenting the Lord's offering at the appointed time. They will bear the consequences of their sin.

14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A foreigner residing among you is also to celebrate the Lord's Passover in accordance with its rules and regulations. You must have the same regulations for both the foreigner and the native-born.'"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9 금

구름기둥과 불기둥

민 9:15-23

15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On the day the tabernacle, the tent of the covenant law, was set up, the cloud covered it. From evening till morning the cloud above the tabernacle looked like fire.

16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That is how it continued to be; the cloud covered it, and at night it looked like fire.

17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Whenever the cloud lifted from above the tent, the Israelites set out; wherever the cloud settled, the Israelites encamped.

18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At the Lord's command the Israelites set out, and at his command they encamped. As long as the cloud stayed over the tabernacle, they remained in camp.

19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When the cloud remained over the tabernacle a long time, the Israelites obeyed the Lord's order and did not set out.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16

20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Sometimes the cloud was over the tabernacle only a few days; at the Lord's command they would encamp, and then at his command they would set out.

21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Sometimes the cloud stayed only from evening till morning, and when it lifted in the morning, they set out. Whether by day or by night, whenever the cloud lifted, they set out.

22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Whether the cloud stayed over the tabernacle for two days or a month or a year, the Israelites would remain in camp and not set out; but when it lifted, they would set out.

23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At the Lord's command they encamped, and at the Lord's command they set out. They obeyed the Lord's order, in accordance with his command through Moses.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17

20 토

출발의 나팔소리 (1)

민 10:1-12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The Lord said to Moses:

2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Make two trumpets of hammered silver, and use them for calling the community together and for having the camps set out.

3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요
When both are sounded, the whole community is to assemble before you at the entrance to the tent of meeting.

4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며
If only one is sounded, the leaders-the heads of the clans of Israel-are to assemble before you.

5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When a trumpet blast is sounded, the tribes camping on the east are to set out.

6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At the sounding of a second blast, the camps on the south are to set out. The blast will be the signal for setting out.

7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To gather the assembly, blow the trumpets, but not with the signal for setting out.

8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에 영원한 율례니라
"The sons of Aaron, the priests, are to blow the trumpets. This is to be a lasting ordinance for you and the generations to come.

9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When you go into battle in your own land against an enemy who is oppressing you, sound a blast on the trumpets. Then you will be remembered by the Lord your God and rescued from your enemies.

10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Also at your times of rejoicing-your appointed festivals and New Moon feasts-you are to sound the trumpets over your burnt offerings and fellowship offerings, and they will be a memorial for you before your God. I am the Lord your God."

11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On the twentieth day of the second month of the second year, the cloud lifted from above the tabernacle of the covenant law.

12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Then the Israelites set out from the Desert of Sinai and traveled from place to place until the cloud came to rest in the Desert of Paran.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1 주일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대상 11:4-9 & 눅 13:34 & 시 122:1-9

(대상 11:4-9)

4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David and all the Israelites marched to Jerusalem (that is, Jebus). The Jebusites who lived there

5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said to David, "You will not get in here." Nevertheless, David captured the fortress of Zion-which is the City of David.

6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David had said, "Whoever leads the attack on the Jebusites will become commander in chief." Joab son of Zeruiah went up first, and so he received the command.

7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David then took up residence in the fortress, and so it was called the City of David.

8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He built up the city around it, from the terraces[a] to the surrounding wall, while Joab restored the rest of the city.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9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And David became more and more powerful, because the Lord Almighty was with him.

(눅 13:34)

34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Jerusalem, Jerusalem, you who kill the prophets and stone those sent to you, how often I have longed to gather your children together, as a hen gathers her chicks under her wings, and you were not willing.

(시 122:1-9)

1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rejoiced with those who said to me, "Let us go to the house of the Lord."

2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Our feet are standing in your gates, Jerusalem.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3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Jerusalem is built like a city that is closely compacted together.

4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That is where the tribes go up-the tribes of the Lord-to praise the name of the Lord according to the statute given to Israel.

5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There stand the thrones for judgment, the thrones of the house of David.

6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May those who love you be secure.

7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May there be peace within your walls and security within your citadels."

8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For the sake of my family and friends, I will say, "Peace be within you."

9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For the sake of the house of the Lord our God, I will seek your prosperity.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22 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창 39:1-6

1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Now Joseph had been taken down to Egypt. Potiphar, an Egyptian who was one of Pharaoh's officials, the captain of the guard, bought him from the Ishmaelites who had taken him there.

2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The Lord was with Joseph so that he prospered, and he lived in the house of his Egyptian master.

3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When his master saw that the Lord was with him and that the Lord gave him success in everything he did,

4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Joseph found favor in his eyes and became his attendant. Potiphar put him in charge of his household, and he entrusted to his care everything he owned.

5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From the time he put him in charge of his household and of all that he owned, the Lord blessed the household of the Egyptian because of Joseph. The blessing of the Lord was on everything Potiphar had, both in the house and in the field.

6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So Potiphar left everything he had in Joseph's care; with Joseph in charge, he did not concern himself with anything except the food he ate. Now Joseph was well-built and handsome,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18

23 화

출발의 나팔소리 (2)

민 10:1-12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3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요

4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며

5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6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7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8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에 영원한 율례니라

9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10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11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12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4
수

설득의 법칙
민 10:29-32

29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 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Now Moses said to Hobab son of Reuel the Midianite, Moses' father-in-law, "We are setting out for the place about which the Lord said, 'I will give it to you.' Come with us and we will treat you well, for the Lord has promised good things to Israel."

30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He answered, "No, I will not go; I am going back to my own land and my own people."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19

31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 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But Moses said, "Please do not leave us. You know where we should camp in the wilderness, and you can be our eyes.

32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If you come with us, we will share with you whatever good things the Lord gives u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20

25 목

호밥의 선택

민 10:33-36 & 삿 4:11

(민 10:33-36)

33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 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삼 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So they set out from the mountain of the Lord and traveled for three days.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went before them during those three days to find them a place to rest.

34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The cloud of the Lord was over them by day when they set out from the camp.

35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Whenever the ark set out, Moses said, "Rise up, Lord! May your enemies be scattered; may your foes flee before you."

36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Whenever it came to rest, he said, "Return, Lord, to the countless thousands of Israel."

(삿 4:11)

11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난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Now Heber the Kenite had left the other Kenites, the descendants of Hobab, Moses' brother-in-law,[b] and pitched his tent by the great tree in Zaanannim near Kedesh.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21

26 금

백성들의 원망 (1)

민 11:1-9

1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Now the people complained about their hardships in the hearing of the Lord, and when he heard them his anger was aroused. Then fire from the Lord burned among them and consumed some of the outskirts of the camp.

2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When the people cried out to Moses, he prayed to the Lord and the fire died down.

3 그 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So that place was called Taberah, because fire from the Lord had burned among them.

4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The rabble with them began to crave other food, and again the Israelites started wailing and said, "If only we had meat to eat!

5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We remember the fish we ate in Egypt at no cost-also the cucumbers, melons, leeks, onions and garlic.

6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 것도 없도다 하니

But now we have lost our appetite; we never see anything but this manna!"

7 만나는 깟씨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The manna was like coriander seed and looked like resin.

8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찧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The people went around gathering it, and then ground it in a hand mill or crushed it in a mortar. They cooked it in a pot or made it into loaves. And it tasted like something made with olive oil.

9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When the dew settled on the camp at night, the manna also came down.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7
토

백성들의 원망 (2)

민 11:10-15

10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Moses heard the people of every family wailing at the entrance to their tents. The Lord became exceedingly angry, and Moses was troubled.

11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He asked the Lord, "Why have you brought this trouble on your servant? What have I done to displease you that you put the burden of all these people on me?

12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Did I conceive all these people? Did I give them birth? Why do you tell me to carry them in my arms, as a nurse carries an infant, to the land you promised on oath to their ancestors?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22

13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Where can I get meat for all these people? They keep wailing to me, 'Give us meat to eat!'

14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I cannot carry all these people by myself; the burden is too heavy for me.

15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If this is how you are going to treat me, please go ahead and kill me-if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and do not let me face my own ruin."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8

주일

요단강: 새로운 전설의 시작

수 3:5-17

5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Joshua told the people, "Consecrate yourselves, for tomorrow the Lord will do amazing things among you."

6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Joshua said to the priests, "Take up the ark of the covenant and pass on ahead of the people." So they took it up and went ahead of them.

7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And the Lord said to Joshua, "Today I will begin to exalt you in the eyes of all Israel, so they may know that I am with you as I was with Moses.

8 너는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Tell the priests who carry the ark of the covenant: 'When you reach the edge of the Jordan's waters, go and stand in the river.'"

9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Joshua said to the Israelites, "Come here and listen to the words of the Lord your God.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10 또 말하되 살아 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This is how you will know that the living God is among you and that he will certainly drive out before you the Canaanites, Hittites, Hivites, Perizzites, Girgashites, Amorites and Jebusites.

11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See,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of all the earth will go into the Jordan ahead of you.

12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명을 택하라
Now then, choose twelve men from the tribes of Israel, one from each tribe.

13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And as soon as the priests who carry the ark of the Lord-the Lord of all the earth-set foot in the Jordan, its waters flowing downstream will be cut off and stand up in a heap."

14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So when the people broke camp to cross the Jordan, the priests carrying the ark of the covenant went ahead of them.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15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멘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 가에 잠기자

Now the Jordan is at flood stage all during harvest. Yet as soon as the priests who carried the ark reached the Jordan and their feet touched the water's edge,

16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the water from upstream stopped flowing. It piled up in a heap a great distance away, at a town called Adam in the vicinity of Zarethan, while the water flowing down to the Sea of the Arabah (that is, the Dead Sea) was completely cut off. So the people crossed over opposite Jericho.

17 여호와의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The priests who carried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stopped in the middle of the Jordan and stood on dry ground, while all Israel passed by until the whole nation had completed the crossing on dry ground.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29 월

거듭남의 산 소망

벧전 1:3-5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Praise be to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In his great mercy he has given us new birth into a living hop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4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and into an inheritance that can never perish, spoil or fade. This inheritance is kept in heaven for you,

5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who through faith are shielded by God's power until the coming of the salvation that is ready to be revealed in the last time.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23

30

화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민 11:16-24

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칠십 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17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18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19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20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21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육십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22 그들을 위하여 양 떼와 소 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2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24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칠십 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31 수

하나님의 메추라기떼

민 11:25-35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24

25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칠십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26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27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28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29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30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31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32 백성이 일어나 그 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33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34 그 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35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개인기도제목 - 1주차

날짜	기도제목	응답

개인기도제목 - 2주차

날짜	기도제목	응답

개인기도제목 - 3주차

날짜	기도제목	응답

개인기도제목 - 4주차

날짜	기도제목	응답

2024.
01

겨울성령부흥집회

간증

01

성령의 은혜로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

조승진 성도 (S강남공동체)

부흥회를 통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일하고 있어서 금요일 8시에 도착할 수 있을까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들을까 하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자리는 있을지 걱정되고 일 끝나고 차에서 들으면서 가야 할지 걱정이 되어서 순예배 집사님께 물어서 주차장 자리를 물어보았는데 다행히 있다고 해서 최대한 수업을 빨리 끝내고 차를 몰고 가는데 다행히 신호도 걸리지 않고 늦지 않게 예배에 도착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나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채워졌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과 모든 어둠의 세력이 압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적 공기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주제로 진행된 둘째 날은 찬양 콘서트에 온 것처럼 영적으로 즐겁고 뜨거운 은혜를 느낄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저의 앞날에 어려움의 파도가 있을 것 같아 걱정이 있었는데 부흥회를 통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고 담대함도 생겼습니다. 더욱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영상 '가장 높은 파도를 서핑을 하며 즐기는 것'을 보고 어떤 문제와 위험이 몰려와도 그것을 즐기고 멋지게 풀어 나가리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고 주님의 군사로 몸에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 선 검으로 마귀도 덜덜 떨게 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시간이었고 부흥회를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주도에서 온 시누이의 감격스런 부흥집회

배수종 성도 (강북공동체)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부흥회를 마친 주일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두 손을 번쩍 들 수밖에 없었고 감사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2000년에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시댁과 친정에서 처음으로 남편과 저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뭔가를 보여 달라는 도마 같은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간증으로 완악한 제가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뒤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선 가족에게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저를 말씀과 기도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특히 가족 구원이라는 사명을 갖고 기도를 해서 다행히 시댁 부모님과 친정어머니, 또한 친척 동생들이 차츰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제주도로 이사 간 시누이 댁을 방문했는데 주일이 겹쳐 있어 제주도 교회를 찾았지만 잘 몰라서 기도하다가 우리 새로운 교회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예배 후 예배 소감을 물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편이 영접 기도를 하면서 시누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세 사람 모두 눈물이 터졌습니다. 22년 만에 시누이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한 시누이는 계속 저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 부흥회 때 한번 직접 와서 참석하면 좋겠다는 전화를 드렸더니 바로 감사하게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서울 도착하자마자 부흥회로 오셨는데 무엇보다 온라인이 아닌 실제 예배에 대한 갈망으로 기대로 부풀어 계셨습니다.

부흥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대를 하니 하나님께서 시누이에게 많은 은혜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강한 성령님의 터치로 엄청난 눈물과 함께 제대로 일어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장이 뛰고 기쁨과 눈물로 집에 와서도 잠이 안 와서 저도 덩달아 흥분하며 하나님 간증을 하느라 밤을 거의 새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제주도에서 오직 이 부흥회를 위해 오니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는 듯했습니다.

22년 만에 이뤄진 시누이의 구원과 이번 부흥회에 함께 와서 눈물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이 하나로 연합되는 은혜

이상희A 성도 (S강남공동체)

9년간의 직장생활을 끝내고 다시 돌아온 새로운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계획과 은혜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도 직장생활을 핑계로 주일 성수도 지키지 못하고, 주님과 단절된 삶을 살면서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악한 영향력에 지배당하고 유린당해서 죄와 타협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직장의 퇴사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을 다시 찾게 하셨고 교회 순예배로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저하는 저에게 눈을 뜨는 시간에 맞춰서 찬송가를 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체 제가 무엇이관대 불순종한 죄인을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지, 주님의 은혜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을 예비해 주시고 부흥회에 우리 가족 (남편과 딸) 모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흥회 메시지는 저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주님과 단절된 삶으로 세상에 젖어 적당히 타협하고 영적인 소경이 되어 분별력 없이 죄의 패턴 속에서 죄를 방치하며 쌓인 영적인 독소를 마구 뿜어내며 사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죄인에게 주님은 처음 겪어본 강력한 성령의 단비를 쏟아부어주셔서 저에게 치유와 회복이 충만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마른 뼈와 같았던 제 삶에 찾아오신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며 내 맘속에 방치해 두었던 죄를 깊은 회개의 길로 견인해 주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영적인 호흡을 넣어주셨습니다.

부흥회 메시지를 통해 가족이 하나로 연합되는 경험을 하게 해 주시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딸이 교회에 나가기를 결심하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들숨과 날숨의 호흡처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켜서 무뎌진 믿음의 칼날을 예리하게 연단시키고 성령의 생기가 저희 가정으로 불어와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길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저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조주희A 성도 (C강남공동체)

저희 가정은 어둠의 세력을 압도하라! 이번 부흥회의 큰 수혜자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그 거라사인 땅에 한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보호막이 뚫렸구나 우리 가정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었구나' 알고 있었지만 가정을 위해 더 기도하지 못했고 더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영적 근육이 사라졌기에 사단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 분노 비난 어둠의 영이 우리 가정을 엄습했습니다.

감사로 하늘 문을 열고, 주 이름의 능력을 믿고 구하며 나아간 저에게, 부흥회 첫날 성령님은 저의 죄들을 모두 조명하시어 회개하게 하셨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무너진 곳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을 아멘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부흥회 둘째 날, 회복된 저와 남편의 손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검을 들려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집 곳곳을 떠올리며 어둠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탁했던 영적공기를 바꿔주실 성령님을 초대하며 가정 안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부흥회를 기점으로 우리 가정의 영적인 기류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도에 힘이 생겼으며, 막혔던 귀가 뚫려 말씀이 들리고, 지혜의 말을 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게 하십니다. 다시금 사랑의 눈으로 가족을 넘어 이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기적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다만 우리가 내어준 부분만 건드린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 마음에 비장함이 되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결단이 무뎌지거나 잊지 않도록 저희 부부의 마음에 인 쳐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Remember who you are!"

앞으로는 우리 가정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며 말씀의 검과 기도의 방패로 우리 가정을 지켜낼 것입니다.

주님만이 저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 받는 내가 이제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이경숙C 성도 (E서초공동체)

어느 날 우리 순의 순장님과 권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주 수요일 순모임이 있는데 금년 마지막 순모임이니, 꼭 잊지 말고 참석해 달라는 당부의 문자였습니다. 이사를 해서 멀다는 이유와 분주하다는 이유로 순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지 일 년이 되어 갔습니다. 이번이 금년 마지막 순예배라 하시니 왠지 맘에 계속 걸렸습니다.

교통체증과 추운 날씨의 핑계를 억누르며 참석하였고 거기에서 순식구들의 따뜻함 속에서 서로 나누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흥집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일정이 맘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12월 1일 금요일 새벽, 깨어서 기도하는 중에 지난 추석 때에 막내 동생과 말다툼을 크게 해서 몇 달간 보지도 않고 연락도 안 했던 일이 불현듯 갑자기 떠오르고, 내가 꼭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엄청 강하게 들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왔고, 기도를 마치고 동생에게 미안하다고 문자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부흥예배를 드렸습니다. 벅찬 은혜와 감동으로 눈물, 콧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저도 모르는 이상한 소리로 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또 쏟아지고, 무엇인지 이해도 되지 않는 언어로 기도를 드리는 제가 느껴졌습니다. 아, 이것이 말로만 들었던 방언기도인가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흥집회 둘째 날에는 첫날보다 더 가슴 벅찬 은혜의 예배였습니다.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맘이 충만했습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한 단어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시간에는 계속 방언의 기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리고, 눈물이 범벅이 되어 정신없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 많은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끊임없이 하고자 합니다. 그 누구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누구를 위해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녀이고 싶습니다. 모든 것, 모든 순간순간이 기적이고 은혜임을 늘 잊지 않겠습니다. 살아 계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생기로 새로워진 영적인 개운함

장보미 성도 (W서초공동체)

저희 부부는 그동안의 분주하기만 했던 삶을 조금은 내려놓고 둘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고 저희 순의 순장님과 순원들의 권유로 이번 부흥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순에서 교제하면서 서로를 사랑해 주고 기도해 주는 순원들의 정성과 사랑에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순원들이 남편들과 함께 모여 각자의 부르심 대로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신기했습니다.

이번 부흥회 때 저는 다 같이 주여! 선창 후 중보기도를 하는데, 마치 성령님께서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크신 손을, 직접 우리 각자 각자의 머리 위에 얹으시고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내 의와 내 교만함으로 가득 찼던 것을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아직 더 해결해야 하는 내 안의 쓴 뿌리들을 위하여 내려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세상에서의 인정을 아직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제 교만함을 회개했습니다. 마른 뼈에 성령님의 온기와 숨을 불어넣은 에스겔의 말씀처럼 우리의 가정에, 아이들에게, 교회에, 이 나라에 성령님의 생기로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영적의 공기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던 중, 그동안 꽤 잊고 있어서 잘 사용하지 않았던 방언기도가 다시 터져 나왔고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영혼에 가득히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사우나를 하고 몸을 목욕하고 각질을 벗겨내면 너무 개운한 것처럼, 제 영혼의 묵은 때를 씻어 내고, 평소에 그동안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깊은 기도를 드리고 싶었지만, 안갯속에 가려져 있어 답답한 가운데 기도를 하는 것 같을 때가 있었는데, 기도를 다 같이 드리고 나니, 주님의 임재하심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 기쁘고 영혼의 개운함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 하고 성령님의 생기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부흥회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새로운교회에 감사드리며, 2024년에는 보다 영적으로 더 깨어 있고 우리 모두 각자가 성령님의 생기를 받아 더 담대하게, 그리고 더 주님께 강력히 붙들려 사는 삶, 각자의 마음 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원을 주님 안에서 능히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4.
01

입교 및 세례자 간증

02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아이

이인희 성도(S강남공동체)

영국 연수 시절에 만난 남편과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한홍 목사님의 주례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2022년 겨울부흥회가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셨고, 돌이켜보니 결혼 후 하나님께서 남편을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며 '그럼 저는 무엇을 비전으로 살아가야 하나요?'하고 되물었을 때 저에게 '네가 나와 같은 마음으로 서 있기를 바란다'하는 마음을 주셨고 중보기도에 대한 마음을 주는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기도를 멈추고 떠오르는 사람들을 두고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선물처럼 저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음성이 명확히 다가왔고 얼마 후 신기하게도 생각도 못했는데 임신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선물과 같은 음성을 들었던 2022년의 겨울 부흥회 이후에는 어떻게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울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고, 산전 육아휴직을 결정하고 임신 기간 동안 뉴젠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예수 이름의 비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성경통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이비 과정을 통해 좋은 인도자님과 조원분들과 매주 나눔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묵상하며 나의 나됨을 포기하고 엄마로서 세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 또 나 자신의 주장에 대해 끝까지 놓기 싫어서 기도하기 싫어서 싸우다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온전한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임신기간 동안 입덧도 없이 감사하게도 말씀 읽기와 예수님을 묵상하며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출산 후 조리원에서 온라인으로 예이비를 마치며 집으로 돌아왔고, 매일 아이를 안고 아이를 축복하고, 기도가 필요한 주위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오히려 더욱 매일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저희 아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아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지혜를 최고로 여길 수 있도록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키우지 않고 아이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아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최혜림A 성도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던 도중, 믿음으로 가득 찬 남편과의 만남이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찾게 되었고, 일상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여 소중한 아이를 잉태하였는데, 예정일보다 1주 빨리 양수가 터져 응급 제왕절개를 통해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사히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나에게 큰 감사함과 믿음을 안겨주었고, 샤론이라는 소중한 존재를 만나게 되어 더욱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교회에서 받은 은혜는 저에게 큰 변화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교회는 제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한 곳으로, 매 주일의 설교를 통해 한 주의 활력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남편의 인도 덕분에 삶은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이를 통해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샤론이가 태어난 후에는 부모로서의 책임과 사랑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교회에서의 은혜와 아이의 출생은 제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샤론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 가정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길 늘 소망하고 아래와 같은 결단과 각오로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가정에서 샤론이를 양육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토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샤론이에게는 성장하는 순간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샤론이에게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꿈과 열정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샤론이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독특한 소질을 계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우리는 샤론이에게 사랑과 이해, 겸손과 감사의 가치를 심어주고 싶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영향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가는데 있어서 주님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성품을 갖추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친구와 이웃들을 배려하며 나눔의 기쁨과 겸손의 가치를 가지도록 양육할 것입니다. 샤론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흐뭇하고 자랑스러운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아이가 되도록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금주A 성도 (W강북공동체)

저는 남편과 두 자녀와 함께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제 기대와 달리 워킹맘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늘 눈치 보게 되고, 맘대로 되지 않는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점쟁이를 찾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주 왕래하던 옷가게 사장님을 통해 주님을 알았으며 그 언니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교회는 갔지만 저는 그냥 믿음 없이 왔다 갔다만 하는 성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 옷가게에서 우연히 만난 상담선생님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같이 기도도 하며 점점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의 죄와 살면서 받아온 상처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회복되는 걸 느꼈습니다.

상담선생님과 함께 만나게 되었던 분이 그 후 멀리 파주까지 찾아오셔서 교제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자연스럽게 상담선생님과 그분이 다니는 새로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새로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다니던 교회와 달리 예배의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신경 쓰였지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눈물에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제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때마침 새신자 교육이 개설되어 남편과 함께 수료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뉴젠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을 행복해하고, 교회 가는 날만 기다리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이대로 있을 수만 없다는 마음에, 커피 브레이크 호세아서를 신청하여 수료했습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부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은 알 수 있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패밀리 심포니에 참석하고자 남편을 설득해 온 가족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패심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울며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배정된 순의 순장님과 만남을 통해 순모임을 하게 되었고, 사랑이 많은 순임을 알게 되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순모임을 하며 제가 힘들고 믿음이 흔들릴 때, 늘 응원군이 되어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더 잡아주시는 듯했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느낌입니다.

남편이 새신자 교육은 수료했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제가 먼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저로 인해 온 가족이 주님을 알고 같이 예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주님을 알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저에게 늘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님께로 인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당당하게,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이재성B (청년2부)

저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명절에 할머니 댁에서 잘 때는 권사님이신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는 기숙사학교이자 미션스쿨을 다니면서 채플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교회를 다닌다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채플 시간에는 늘 졸았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 때는 서양 사학을 공부하면서 평범했던 '교회' 이미지는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교회'라는 커뮤니티에 제 발로 찾아갔던 건 영국 유학 시절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한국인이 아무도 없는 지역으로 갔고 영국의 겨울은 유난히 어둡고 길었습니다. 구정 시즌, 한인 타운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김밥을 사러 가는 기차에서 우연히 교회에 가는 한국 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말을 거니, 먼저 돌아온 질문은 '교회 다니세요?'였고, 저는 할머니를 떠올리며 '다니긴 하는데 열심히 안 다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마다 동네에서 진행하는 셀 모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첫 셀모임에서 골방에 갇혀 다 같이 통성기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적응이 되지 않았지만, 목요일마다 먹을 수 있는 한국음식과 언니 오빠들의 관심으로 매주 빠지지 않고 나가며 한인 타운에 있는 교회의 새가족까지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 커뮤니티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영국에서 돌아온 저는 당연히 교회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한홍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첫날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셨고 성가대 활동을 하시면서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의 노래하는 모습을 보러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권유로 새가족을 등록한 뒤 6년간 저는 예배도 시간이 허락할 때만, 순모임도 시간이 허락할 때만, 또래모임만 아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만 털어놓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의 고민이 생겼고 그 시절을 거치면서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왠지 모르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는 마음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외할머니가 해주시던 기도도, 한국인이 아무도 없던 곳에 유학을 가게 된 것도, 이 동네에서 아버지가 한홍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된 것도, 또래모임만큼은 빠질 수 없을 만큼 재밌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느낍니다. 할머니의 기도를 듣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 주변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저와 늘 함께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하나님께 서운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 순간조차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을 압니다.

2024.
01

대화스쿨 03

간증

대화스쿨을 통한 작은 변화의 시작

김민경 성도 (W서초공동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들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지내고 싶은 바람과는 달리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시간들을 지나오며, 도움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아이가 셋인 저는 둘째 아들과 5년 넘게 힘든 시간을 보냈고, 지금은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대화가 제자리를 맴돌 때, 내 마음과 달리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며 답답했습니다. 대화스쿨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알고, 소통을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들으며 '건강한 자아상'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데 나는 나 자신을 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가 힘든 건지… 어린 시절에 경험한 비교와 비난 등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아파하고 있던 어린 나를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마음을 관찰하며 나와의 대화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인정해 주고 그 마음을 주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밑바닥까지 보여드려야 주님께서 밑바닥까지 관여하실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힘이 되었습니다.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며 '마음'이 이전에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마음을 잘 전달하고, 다른 사람 마음에 집중해 주면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바람과 함께 의사소통 기술을 잘 익혀야겠다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4주 차 강의를 통해서는 갈등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갈등은 무조건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갈등을 피하거나 묻어 놓기보다는 잘 풀어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갈등을 잘 풀면 강한 결속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전달 기술을 익히고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며 사랑의 수고가 더해질 때 우리의 사랑이 열매를 맺어가겠구나 생각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화스쿨을 듣기 전에는 대화를 시작하면 내 의견을 말하기 바빴다면, 지금은 STOP!!! 누구 마음이 힘든 지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보려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은혜받은 자로서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우리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을 소망합니다.

STOP! 지금 누가 힘들지?

엄지희A 성도 (C강남공동체)

저는 20년 차 직장맘이자 팀장입니다. 힘들게 간부의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저를 힘들게 하는 건, 대표님도, 제 위에 몇 없는 상사들도 아닌, 요새 핫한 20-30대 부하 MZ세대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파구로, 이들과 대화를 잘하고 싶어서 대화스쿨을 신청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20-60대까지 여러 세대가 어우러져 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MZ세대 직원들이 이해가 안 되고, 같이 일하기가 힘들다고, 여러 세대가 한 입을 모아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자인 40대 제가 돌파구로 그들을 알아가기로 했습니다.

강사님께서 알려주신 스킬! "모국어를 영어 하듯이 하라" 이것이 무슨 말인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개인주의 행동을 하는 직원들을 보면, 먼저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떻게 참고 모국어를 영어 하듯 하란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훈계를 하거나, 충고를 하면 저보다 더 억울해하는 직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말하기도 싫고 감정이 점점 악화되어 갈 때, 강사님께서 가르쳐준 방법을 써보았습니다.

"모국어를 영어 하듯이 하라"

먼저, 감정을 바로 나타내지 말고, 한소끔 쉬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할 때 바로 말하지 않고, 주어 동사 목적어 놓는 것 같이 하다 보면, 감정이 정리되어 직원한테 쏘아붙일 말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소유한 사람을 가리기입니다. 누구의 감정이 힘들지? 누구의 감정이 상했지? 등으로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헤아림으로 억울하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자 하니 대화가 되었습니다.

항상 제 생각이 먼저였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그 직원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전히 연습하지 않으면, 바로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사람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사님께서는 저희에게 STOP!! 지금 누가 힘들지? 라는 스티커를 냉장고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서 감정을 컨트롤하라고 하셨습니다. 제 회사 노트북 앞에는 이 문구가 붙어있습니다. 울컥하고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속으로 외칩니다.

"STOP! 지금 누가 힘들지?"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기

이순정A 성도 (E서초공동체)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중3 아들과 초6 딸이 있습니다.
아들은 온순하며 순종적이고, 집에 조용히 머물기를 좋아하며 피아노 치기를 즐겨하는 반면, 딸은 어찌나 청개구리 같은지 말도 잘 안 듣고, 운동을 좋아하고 활동적이라 나가 놀기 좋아하고, 또 하나님께서 무슨 재능을 그리 많이 주셨는지 만들기, 그림 그리기, 노래, 태권도, 글쓰기, 영상편집 등 공부 빼고는 다 잘하는 듯 보입니다.
본인도 스스로를 높게 평가해서 자신감이 뿜뿜 하여 자기주장이 강하다 보니 어른인 제 눈에는 이기적이고 버릇없어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딸아이에게는 지적하는 일이 많아졌고,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아이와 말씨름하는 일이 잦았던 것 같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화로 애초에 원인이었던 주제는 온 데 간 데 없고, 한참 삼천포로 빠져 엉뚱한 얘기로 열을 내고 있는 모녀지간이었습니다.
나름 논리 정연하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 딸아이에게 저는 '잔소리하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대화스쿨이 너무 궁금했고 기대가 되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 유익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요즘 'STOP'을 잘합니다. 그리고 침묵합니다. 반영적 경청까지는 어떻게든 하겠는데 그동안 '너 전달법'으로 익숙해 있던 혀의 근육을 '나 전달법'으로 바꾸고자 하니 도통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침묵합니다.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침묵함으로 잔소리는 줄었으니 반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엄마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딸도 알아줄까요?
앞으로도 대화스쿨에서 배운 것을 잘 기억하여, 제 감정보다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들여다 보고 소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 한 주, 수업을 들을 때마다 느꼈던 것은 "남편과 함께 들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수업 듣는 분들이 부러웠습니다. 이번엔 바빠서 함께할 수 없었던 남편과 다음 기회엔 꼭 함께 다시 듣고 싶습니다.

2024.
01

마더와이즈

04

간증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육아

조무경 성도 (S서초공동체)

업무와 육아를 함께 병행하면서 내 능력과 노력으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 얼떨결에 마더와이즈 광고를 봄과 동시에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 시간은 없지만 우선 지르고 보자! 어떻게든 되겠지!" 빡빡하고 바쁜 업무 스케줄 속에서 순모임과 마더와이즈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의 숙제를 위해서 나는 수험생처럼 쪽시간을 내어가며, 책을 들고 다니며 짬짬이 과제를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짬짬이 시간이 하나님과 깊은 틈새 교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6주 차 <어머니의 비전>을 하면서 과거 하나님과의 추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결혼 후 임신은 당연히 쉬울 줄 알았는데, 4년 동안 불임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난임 병원을 다니면서 각종주사와 약 영양제를 달고 살았고, 깊은 바닥까지 내 자아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병원 스케줄 때문에 먼 곳까지 떠날 수도 없었고, 매달 실패를 알게 되면 숨어버리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발 나의 체면을 구기시지 말라며 하나님께 협박도 하고,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더 힘들어서 암흑 속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바닥을 보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숨어서 지낼 수 있도록 다독여 주시기도 했습니다. 시험관 3년 차에 남편에게 꿈으로 두 딸을 보여주셨고, 면역치료와 수술을 한 뒤 두 딸이 태어났습니다. 불임의 원인은 '모체의 과도한 면역 이상'이었습니다. 몸속 수정란을 모체면역이 바이러스로 인식해서 공격하고 죽게 하다 보니, 착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가면역을 떨어뜨리는 링거를 정기적으로 맞으면서 내 몸이 아이를 죽이지 않도록 하며 임신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몸에 무리가 많이 가서 두 번 모두 임신중독으로 버티다가 주은이와 주아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출산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은이는 중증 아토피로, 또 주아는 대천문이 열리지 않고, 근육이상으로 사경진단을 받으면서 대학병원에서 긴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의 이름 뜻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이'로 바꾸었습니다. '무사히 태어나게 해 주심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은)', '주님께 드리는 아이 (주아)', 아이들의 이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아의 뜻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생명에 대한 주권을 주님께 드려야만 나는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날 과거의 일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은이와 주아에게 비추시는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불임의 시간들, 힘들고 처절했던 치료의 시간들, 그리고 지금도 섬세하게 만져가시는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그리시는 계획에 맞게 흘러갈 것이고, 이미 그렇게 계획하셨고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은이와 주아는 나의 태를 통하여 태어났지만, 출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어나가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헌아를 하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은 흘러 보내주되, 엄마인 나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그런 육아를 꿈꿉니다. 각자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동역하는, 그러한 가족구성원으로서 아이들을 키우고 자라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폭풍 속에서 만난 마더와이즈

이지혜J 성도 (N강남공동체)

마더와이즈를 시작하기 전 몇 달 동안 저의 삶은 너무나도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힘든 일이 딱히 없는데 삶이 힘겨웠고, 사소한 일로 남편과 상처를 주고받으며 아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영적 무기력 상태에 머물던 중 마더와이즈 조장으로 섬겨줄 수 있겠냐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나를?'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바로 '네'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왜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부르실까 하는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혼자 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시작하는 날부터 그 은혜가 감사해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첫날부터 나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다투며 지냈던 너무나도 별거 아닌 원인들과 나의 부정적인 모습을 떠올리게 하셨고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누니 남편도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자꾸 무너졌던 것 같다며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 자기 전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게 되었고 마더와이즈를 수료한 지금까지도 매일 그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마더와이즈 모든 과정을 수료했기에 다시 마더와이즈를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조장을 맡게 되면서 묵직한 책임감으로 전보다 열심히 묵상을 하게 되고 매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더 마음을 다해 묵상을 하다 보니 지난 과정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내용들이 보이고, 저의 뾰족한 부분들을 깨뜨리시며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대할 때 변화된 제 모습에 감사하게 되고, 의무감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마냥 좋아졌습니다.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아이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아이의 입에서 "하나님 덕분이야"라는 감사의 말들이 나오게 하시며,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낄만한 상황에도 매일 나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남편에 감사한 마음이 더 크니 짜증 내지 않게 되고, 부부가 안정되니 아이들도 매일 평안하고,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한 날들의 연속이라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더와이즈 조장으로 불러주신 것이 부족한 나를 일으키시고 더 단단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고, 앞으로도 쭉 조장으로 섬기고 싶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딱 붙어있으면서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참으로 큽니다. 남편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 "오늘 마더와이즈 갔다 왔어?"라고 묻는 남편을 보며 마더와이즈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우리의 매일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메모

MEMO

메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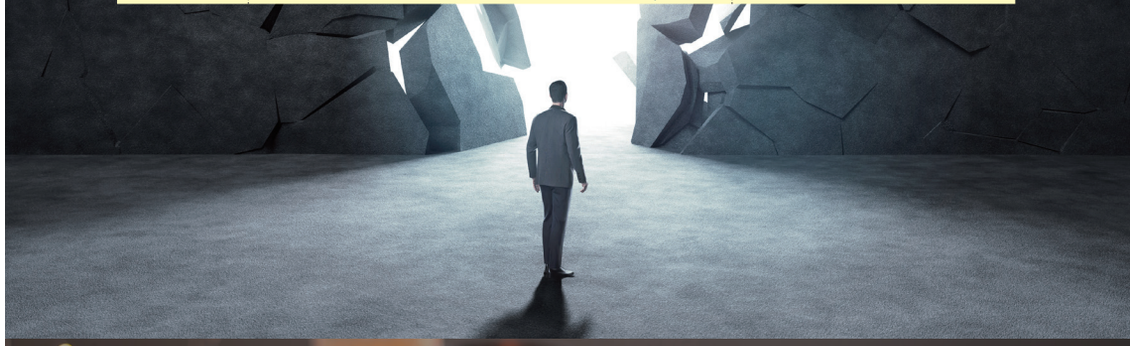
새로운교회
SAEROUN CHURCH

2024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거룩한 돌파구
HOLY BREAKTHROUGH

2023.12.30(토) - **2024.2.24**(토) 오전 6시 / 본당 & 각 기도 스테이션(화-금)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스테이션

스테이션	주소	담당자/연락처
독 산	**고려테크온 406호**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38	여미선 성도 010-8916-9466
성 수	**블랙홀**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4길 32 지하 1층	박찬필 안수집사 010-5663-3888
송 도	**홀리데이인 인천송도호텔 미추홀** 인천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1 (B1F)	김용섭 성도 010-2000-7494
영등포	**동성빌딩 3층**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29길 5 (당산동3가)	송지숙 권사 010-6705-9611
일 산	**일산 메그놀리아 디저트카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225번길 5, 3층	서정원A 안수집사 010-5231-9725



1월 수요예배 "소망"

1월 3일	1월 10일	1월 17일	1월 24일	1월 31일
조은영 목사	이상화 목사	이아론 목사	이준희 목사	김소리 목사

시간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문의 : 조은영 목사 choeunyoung@saeroun.net

새로운교회
saeroun church

예배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교총 1층 컨벤션홀
사 무 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6길 56, 삽준빌딩 3층
TEL (02) 597-0691 **FAX** (02) 597-0601 www.saeroun.net

양재역 출발 6:00 : 양재역 파리바게뜨> 일동제약사거리 보도블럭 > 한라아파트 > 교총

교회 출발 7:10(화~금), 7:20(토) : 교총 > 한라아파트 > 양재역 파리바게뜨

셔틀탑승장소(하얀색 스타렉스 차량) - 양재역 9, 10번출구 파리바게뜨 앞 / 교총 본관 앞(테니스장 방향)